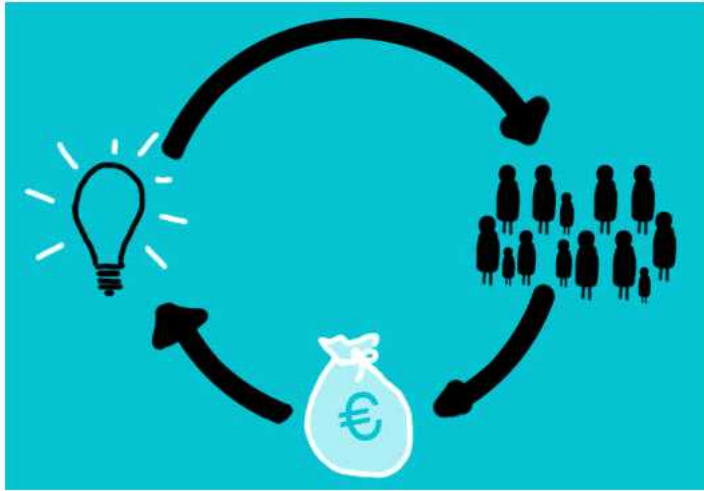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



클라우드펀딩(crowd funding) 개념을 도식화한 일러스트레이션
© Rocío Lara | CC BY-SA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크라우드 펀딩이란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다수의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funding)를 말한다. 초기에는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 '소셜 펀딩'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크라우드 펀딩의 발전

세계 최초의 크라우드 펀딩은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인 ZOPA.COM(조파닷컴)이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2007년 영국의 크라우드큐브(crowdcube.com)가 최초다. 이후 2008년 미국에서 최초의 기부형(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인디고고(Indiegogo)가 출현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이란 용어가 일반화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크라우드 펀딩이 2011년 후원·기부·대출형을 시작으로 정착되기 시작했고, 2016년 1월에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됐다. 당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개인 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업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연간 최대 500만 원(업체당 2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8년 4월 3일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2배로 확대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부터 일반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종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크라우드 펀딩의 형태

크라우드 펀딩은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지분투자형(증권형)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뉜다.

- 후원형은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공연과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기부형은 보상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순수한 기부 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 대출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P2P 금융으로, 소액 대출을 통해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지원받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다시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 지분투자형(증권형)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투자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으로 보상을 제공받는다.

구분	후원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투자형)
자금모집 방식	후원금, 기부금 납입	대출계약 체결	증권(주식, 채권) 발행
보상 방식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	금전적 보상 (원금, 이자)	금전적 보상 (배당금, 원금, 이자 등)
주요 사례	문화·예술·복지 아이디어 상품	자금이 필요한 개인, 사업자	창업 초기기업

직업인 인터뷰_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자
클라우드펀딩업체 0사 성00 대표



많은 사람의 힘을 믿는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을 돕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많은 사람의 기부와 투자를 통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Q. 클라우드 펀딩의 뜻과 운영하시는 회사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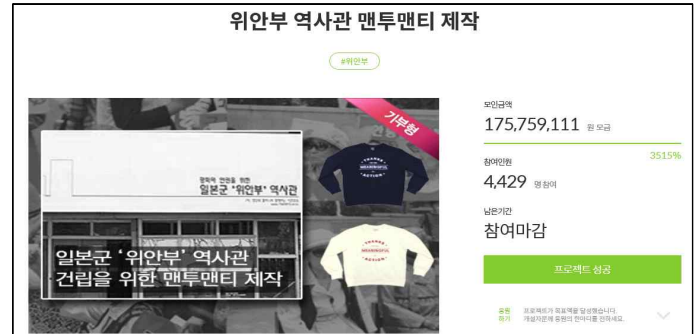
클라우드펀딩은 기업이 사이트에 사업이나 제품 소개를 올린 뒤 대중으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회사는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공익적인 일을 하는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합니다. 2017년에는 장애인 전문 여행사가 무보증 전환사채 1억원어치,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00이 전환사채 6억6000만원어치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였고 투자자는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만기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Q.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사를 창립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를 비롯한 창립 멤버 3명은 이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활동을 하며 알던 사이였는데, 함께 대화하다가 '우리 사회에 의미 있고 괜찮은 일을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을 만들어보자는 목적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그러한 기업들을 돕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Q. 사회적인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낸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업에서 진행한 클라우드 펀딩 중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건 H 사의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였습니다. 기부 보상으로 맨투맨 티셔츠를 보냈죠. 또 한 시민모임이 진행했던 세월호 기억 팔찌 캠페인도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보며 깨달은 점이 있다면, 큰 금액이 모이는 게 성공의 척도일 수도 있겠지만, 성공한 펀딩이 사회적 문제나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많은 사람들에게 관련 인식을 심어주는 힘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발적인 마케터가 돼 프로젝트를 곳곳에 알리는 과정을 보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는 점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가치를 알리고 싶을 때,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금난으로 그 꿈을 실행하기 어려울 때, 그들을 돕는 길잡이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출처: benefit.it, 2014.10., [STAR SOCIAL] 인터뷰/ 한국경제)

(인터뷰를 읽고) 내가 클라우드 펀딩을 연다면?

Q. 만약 내가 클라우드 펀딩을 열게 된다면, 어떤 가치나 사회적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지 생각해보아요.

Q. 어떤 제품을 보상으로 주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투자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지분형으로 혁신형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오퍼툰(<http://www.opportune.co.kr>)과 온라인 투자의향 접수형 사이트인 오픈트레이드(<http://www.opentrade.co.kr>)가 있고, 후원형으로 프로젝트 중심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와디즈(<http://www.wadiz.kr>)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오마이컴퍼니(<http://www.ohmycompany.com>)가 있다. 문화예술과 기술 분야에서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텀블벅(<http://www.tumblbug.com>)과 금융형에는 머니옥션(<http://www.moneyauction.co.kr>), 키픽펀딩(<http://keefun.kr/index.php>) 등이 있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커리어넷 드림레터, 클라우드넷, 네이버/다음 백과, 박문각 시사상식